**음성 가이드： 스즈메 지옥**

큰길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으로 귀를 기울이면 빠직빠직 터지는 듯한 작은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. 이것은 스즈메 지옥에서 나는 소리로, 지하에서 내뿜은 증기가 작은 새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.

이 온천의 이름은 매우 슬픈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1570년대에 운젠의 사찰에서 수행 중이었던 한 어린 승려가 귀중한 하얀 참새를 기르고 있었습니다. 다른 사원의 어린 승려(어린아이)와 흰 참새를 서로 빼앗으려고 했는데, 이 싸움이 원인이 되어 운젠에서 사원간에 큰 다툼이 발생했고, 이로 인해 많은 절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의 요곡(전승)에서 유래되었습니다.